

손흥민, 시즌 2호골 '폭발'

아시아 선수 EPL 최다골

손흥민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18분 결승골을 넣었다. 이 골로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1-0으로 꺾으며 7승2무2패(승점 23)로 3위를 유지했다.

리그 2호골이자 시즌 3호골 맛을 본 손흥민은 이 골로 EPL 통산 20호골을 달성했다.

박지성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 선수 EPL 최다골(19골)을 넘어선 기록이다. 손흥민은 EPL 데뷔 첫 해인 2015~2016 시즌 정규리그서 4골을 넣었고 지난 시즌에는 14골을 기록했다.

EPL 통산 19골을 기록중이던 손흥민은 이날 리그 2호골을 넣으면서 박지성의 기록을 깼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정규 리그 외에도 컵 대회 6골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골을 더해 모두 21골을 넣었다.

이는 차범근 감독이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했던 한국 선수 유럽 리그 한 시즌 최다 골(19골) 기록을 31년 만에 갱신 기록이다.

아날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함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토트넘은 주도권을 잡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압박했다. 하지만 좀처럼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공격 흐름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18분 결승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펼치고 있다.

오히려 전반 36분 덴의 헤딩 슈팅을 가차없이 골키퍼가 선방하며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후반 들어 크리스탈 팰리스가 거칠게 몰아쳤다. 후반 12분 오리에의 패스 미스를 틈 타 자하가 가차없이까지 제치며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벗어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답답하던 공격 흐름을 이어가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한방으로 분위기를 역전시켰다. 손흥민은 후반 18분 시소

코의 크로스가 수비에 맞고 나오자 아크 서클 근처서 왼발로 절묘하게 감아쳐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어 손흥민은 후반 37분 골키퍼와 일대일 찬스를 잡으며 멀티골 기회를 잡았지만 오른쪽 슈팅이 옆구리를 때리며 아쉬움을 삼켰다.

더 이상의 골은 터지지 않았고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승골로 승점 3점을 획득했다.

/뉴시스

양현종, 사상 첫 KS·정규 MVP 2관왕

KIA 타이거즈의 투종 최완에 이은 양현종(29)이 사상 첫 정규 시즌과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 동시석권이라는 역사를 썼다.



20승 달성과 통합우승, 한국시리즈 MVP 등극의 기쁨을 맛보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양현종에게 정규시즌 MVP 수상은 시즌의 화려한 화룡점정이다.

양현종은 6일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열린 2017 타이완KBO 시상식에서 MVP로 선정됐다.

프로야구 기자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 107표 가운데 1위표(8표) 68장, 2위표(4표) 18장, 3위표(3표) 10장, 4위

표(2표) 4장, 5위표(1표) 2장 등 총 666표를 받아 204표를 얻은 최정(30·SK 와이번스)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MVP에 등극했다.

국내 선수가 정규시즌 MVP를 수상한 것은 2014년 서건창(넥센 히어로즈) 이후 3년 만이다.

토종 투수의 정규시즌 MVP 수상은 2011년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 이후 6년 만이고 KIA 선수의 MVP 수상도 6년 만의 일이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양현종은 역사에 남을 활약을 선보였다.

31경기에 등판해 198%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은 20승 6패 평균자책점 3.44의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해터 노에서(201%이닝)에 이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은 해터와 공동 다승왕에 올랐고, 평균자책점 5위, 승률 2위(0.769)를 차지했다.

/뉴시스

또 양현종은 158개의 탈삼진으로 이 부문 3위에 이름을 걸었다.

양현종은 올해 31경기 중 20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6이닝 3자책점 이하)를 기록했는데, 이는 리그 공동 2위에 해당한다. 다관왕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성적이다.

토종 투수가 20승을 달성한 것은 1999년 현대 유니콘스의 정민태 이후 18년 만이다. 선발승으로만 따지면 1995년 LG 트윈스의 이상훈 이후 22년 만이다. KIA 투수로는 최초의 20승 고지 점령이다. 해태 시절(1982~2000)까지 포함하면 세 차례 20승을 기록한 선동열(1986년 24승·1989년 21승·1990년 22승)과 이상훈(1983년·20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양현종은 팀 동료 해터 노에서와 나란히 선발 20승을 거뒀다. 1985년 삼성 김시진·김일용(각 25승) 이후 32년 만이자 두 번째로 팀내 동반 20승 기록까지 세웠다.

박성현, 역대급 시즌 완성까지 두 대회

29년 만에 신인상+올해의 선수상 동시 석권 도전

"1승을 하고 싶고, 한국에서 받지 못한 신인상을 목표로 하고 싶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해 놀라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1년 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진출을 선언할 때 목표하던 비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휩쓸고 미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각정이 앞섰다.

LPGA 투어에서 여러 차례 우승 경쟁을 펼친 경험이 있지만 언어에 대한 장벽과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여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꼬박 1년이 지난 지금 박성현은 LPGA 투어는 물론, 세계 여자골프 최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다.

지난 주말 일본에서 열린 '보토 재팬 클래식'에서 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메디힐)이 공동 33위에 그치며 19주 연속 지켜온 여왕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성현은 지난주 재팬 클래식 대신 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랭킹 포인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2위에서 마지막 한계단 오를 수 있게 됐다.

미국 진출 3년 내 세계랭킹 1위에 오르고 싶었던 목표를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데뷔 시즌 이루게 됐다.

2007년 여자골프 세계랭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신인이 1위에 오른 것은 박성현이 처음이다.

전 세계랭킹 1위 신지애(29·스리본드)와 리디아 고(뉴질랜드)도 투어 2년 차 때 1위를 했다.

박성현은 적응을 이유로 올 시즌 출발도 다른 선수들보다 늦었다.



박성현은 투어사상 가장 빠른 시간(19개 대회)에 상금 200만 달러를 돌파하며, 현재 상금랭킹 1위(216만1005달러·약 24억1000만원)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단한 기록을 써내려가며 '슈퍼투키'라는 별명을 얻었다.

초반 3개 대회를 건너 뛰고 4번째 대회인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늦은 데뷔전을 치렀지만 3위에 오르며 '역시 박성현'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3월 KIA 클래식(공동 4위)과 4월 '텍사스 숏아웃'(4위)에서 6위를 하며 적응을 마쳤다. 5월 '블랙 챔피언십'에서는 준우승하며 첫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에서는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데뷔 첫 우승의 순간을 맞았다.

짜릿한 역전 우승과 함께 박성현이란 이름 석 자를 전 세계 골퍼팬에게 알렸다. 단 번에 90만 달러의 상금을 거둬들이며 각종 부문에서 선

/뉴시스

'홍명보 자선축구' 내달 19일 고척 스카이돔 개최

홍명보장학재단이 주최하는 꿈나무 축구경기(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가 다음달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최초로 야구장에서 열리는 축구 이벤트다.

STD 2017은 홍명보장학재단이 소아암 환자를 비롯한 각 스포츠 복지단체, 축구 유망주,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연례 행사다. 2008년 출발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다.

그동안 손흥민, 이승우, 구자철 등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연

예인, 장애인 선수 등이 함께 했다. 총 22억20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올해 캠페인 테마는 한국 축구 발전의 기반을 다진 8인의 축구영웅들인 김용식, 김화집, 홍덕영, 한홍기, 장남식, 최정민을 기리는 것으로 정했다.

한국축구 숨은 영웅들의 업적과 국가대표 정신을 널리 알린다. 수익금은 소아암 어린이 돕기 등과 함께 국가와 국민에 공헌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원로들 중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간다.

참가 선수명단은 추후 발표한다. 홍명보 이사장은 "국민 스포츠인 축구에 매개로 주변 소외계층을 위한 가치 있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자 마련된 자선축구경기가 어느덧 15회를 맞이했다"며 "올해는 한국 축구의 숨은 영웅들을 메인 테마로 더욱 다양한 즐길거리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홍명보장학재단은 STD2017 페이지를 통해 캠페인 론칭 기념 이벤트를 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